

한국紙 中央日報 1996年11月9日

아시아~ヨーロッパ高速道路を推進

建設交通部、早速国連と協議

アジア横断鉄道に続き、アジア各国を経てヨーロッパまで結ぶ「アジアハイウェイ」の建設が推進されている。

建設交通部は8日、国連のアジア太平洋経済社会委員会(ESCAP)がヨーロッパ各国を結ぶユーロ・ロード(Euro-Road)のようなアジアハイウェイを本格的に推進するにあたり、路線の協議などのため今月末、関係者を国連に派遣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アジアハイウェイは、ESCAPが80年代初めに提案し中国などの反対で留保になったが、このたび中国が独自の路線案を提示し参加の意志を明らかにしたことで活気を帯びてきた。ESCAPの構想ではアジアハイウェイは、韓日間の海底トンネルを掘り韓日を結んだ後韓半島を経て中国の瀋陽に至り、北京から南北の路線に分かれヨーロッパに結ぶ計画である。

南側の路線は、北京~上海~ベトナム~タイ~ネパール~バングラデッシュ~インド北部~パキスタン~中東~トルコを経て南ヨーロッパまで結ぶ総延長2万3千kmの区間である。

(訳注：以下記事未入手)

2

1996년 11월 9일 토요일

50판

중앙일보



亞洲~유럽 高速도로 추진

건교부, 곧 유엔과 협의

박종권 기자

아시아 횡단철도에 이어 아시아 각국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아시아 하이웨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유럽 각국을 잇는 유러 로드(Euro-Road) 형태의 아시아 하이웨이를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노선협의등을 위해 이달 말 관계관을 유엔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ESCAP

이 80년대 초 제안했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유보됐으며, 이번에 중국이 자체 노선안을 제시하며 동참의사를 밝혀 활기를 띠게 됐다. ESCAP이 구상해온 아시아하이웨이는 한·일간 해저터널을 뚫어 일본~한국을 연결한 뒤 한반도를 지나 중국 선양(瀋陽)을 경유해 베이징(北京)에서 남·북 노선으로 갈라져 유럽을 잇는 방안이다.

남부노선은 베이징~상하이~베트남~태국~네팔~방글라데시~인도북부~파키스탄~중동~터키를 경유해 남유럽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2만3천km 구간이다.

180